

## || 태재연구재단 브리핑

### “융합연구” 연구주제 개괄

한반도는 산업사회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복합적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세계 패권 경쟁의 경계선에 놓여있고, 자유와 평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반도는 단순히 생존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주도하는 '통합적 사고의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위기는 특정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된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풍요를 선사했지만 기후와 생태는 위협받고 있다. 정치는 국익과 인류보편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고 인류-생태-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질서를 제시해야 한다.

융합연구는 기존의 분절된 사고방식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특히 태재가 설정한 도시경영-국가경영-세계경영 및 세계공동체 연구주제 13개(상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를 아우르는 안목과 역량을 갖추고 인류 전체의 과제를 풀어내는데 도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가치와 협력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데 기여한다.

### 채용인원수

팀원 0명